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9. 5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정책동향 연구부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제 목: 2005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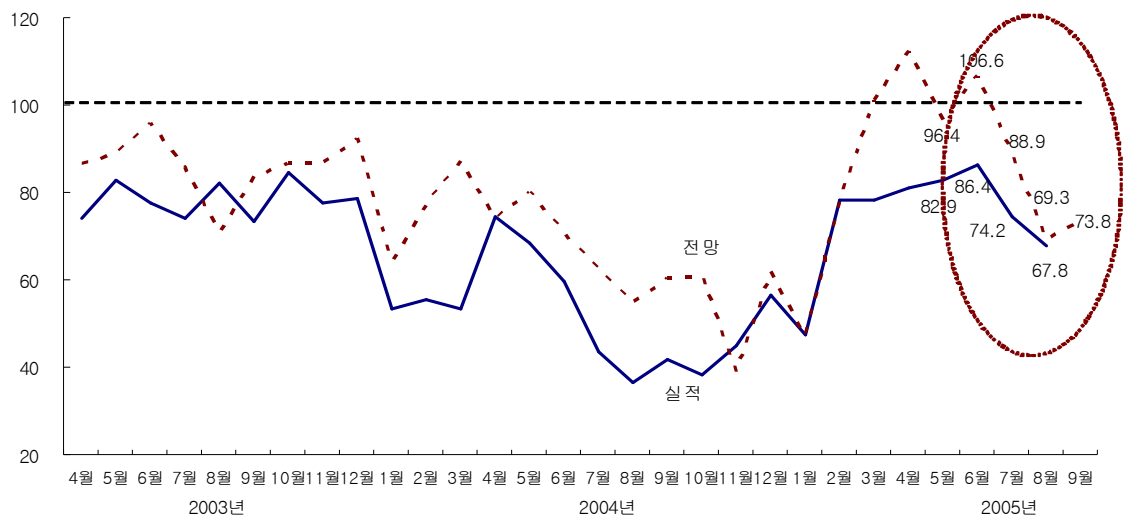
- 2005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7.8을 기록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83.3)의 체감경기가 7개월만에 기준선 아래로 하락함. 중견업체(63.9)와 중소기업체(54.0)는 체감경기가 더욱 낮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80.0)와 지방업체(57.6)의 체감경기가 모두 나쁜 것으로 나타남.
 - 9월 전망은 73.8을 기록하였으며, 올해 들어 체감경기가 높았던 대형업체(91.7)도 경기전망지수가 2개월째 낮게 조사됨.
- 공사물량(81.4)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공종별로 보면 모든 공종에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토목공사의 경우 대형업체의 공사물량(75.0)이 7개월만에 감소함.
 -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109.1)의 공사물량은 증가한 반면 중견업체(78.9)와 중소기업체(51.6)의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임.
 - 9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90.7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지수는 2개월째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재와 인력의 경우 수급은 원활하고 비용은 여전히 높다고 업체들은 응답함.
 - 9월 전망을 보면 자금·인력·자재관련 지수들이 모두 기준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005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8월 CBSI 67.8, 2개월째 하락

- 2005년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7.8을 기록함.
 - 지수는 올해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 왔으나 지난 7월에 이어 2개월째 지수가 낮아짐.
 - 이는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 경기종합 BSI 추이 >



- 최근 들어 체감경기와 함께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올해 들어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은 반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그러나 6월 이후 전망지수가 크게 낮아지며 체감경기도 더욱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체감지수가 크게 낮아짐.
 - 대형업체(83.3)는 체감경기는 올 2월 이후 7개월만에 체감경기가 기준선 아래로 하락함.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63.9, 54.0을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가 낮았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80.9를 기록하여, 지방업체(57.6)보다 체감경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4년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망
총 합		41.7	38.2	44.8	56.6	47.4	78.1	78.4	81.2	82.9	86.4	74.2	67.8(69.3)	73.8
규모 별	대형	37.5	33.3	50.0	87.5	50.0	100.0	100.0	100.0	109.1	107.1	100.0	83.3(72.7)	91.7
	중견	48.8	43.8	42.1	38.2	56.4	74.5	81.8	81.6	71.0	90.5	76.5	63.9(79.4)	59.5
	중소	38.5	37.5	41.7	41.3	34.1	56.5	49.1	58.8	65.9	57.4	41.5	54.0(53.7)	69.4
지역 별	서울	45.1	38.9	44.9	64.4	50.9	91.3	98.1	96.1	101.6	98.5	86.4	80.9(70.6)	75.7
	지방	37.1	37.2	44.8	43.8	41.2	60.0	50.4	57.7	54.4	63.6	59.8	57.6(66.6)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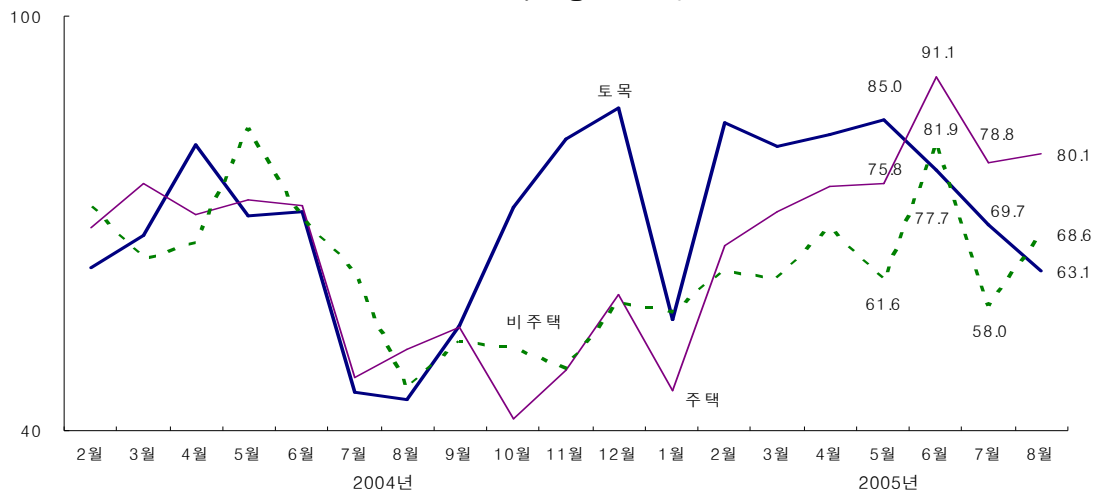
주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2005년 9월 건설경기 전망은 73.8을 기록함.
 - 다음달 경기에 대한 전망은 전월에 비해 4.6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대형업체(91.7)는 올해 들어 향후 경기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8월 이후 2개월째 경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공사물량 여전히 부족, 대형업체 토목공사물량 7개월만에 감소

- 공사물량지수는 81.4를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됨¹⁾.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에 비해 8.5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공사물량은 모든 공종에서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토목물량지수는 63.1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형업체(75.0)의 경우 7개월 만에 토목공사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문(80.1)은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나, 8·31 대책의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정부대책에 의한 공사물량의 감소는 향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대형업체는 108.3을 기록하여 주택공사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주택 부문은 68.6을 기록하여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규모별 공사물량 격차는 지난달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대형업체(109.1)는 지난달에 비해 물량이 증가한 반면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78.9, 51.6을 기록하여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의 공사물량지수가 각각 94.5, 64.2를 기록하여, 지방업체의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조사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1.4	109.1	78.9	51.6	94.5	64.2
	전망	90.7	127.3	70.3	71.0	103.3	71.8
토목	실적	63.1	75.0	66.7	45.0	74.6	54.1
	전망	89.1	108.3	87.9	67.8	102.7	76.2
주택	실적	80.1	108.3	73.5	54.5	91.0	61.8
	전망	82.6	108.3	74.3	61.8	95.1	68.2
비주택	실적	68.6	83.3	61.3	59.6	74.7	61.2
	전망	69.7	83.3	61.3	63.3	71.5	62.4

주: 실적은 2005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9월 예측지수임.

- 9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90.7을 기록하여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대형업체(127.3)의 경우 계절적인 영향이 고려되어 토목과 주택부문의 공사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중견업체(70.3)와 중소기업체(71.0)는 공사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자금조달 2개월째 원활

- 자금관련지수에서는 자금조달지수가 2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공사대금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하였으며, 자금조달지수는 103.9를 기록함.
 - 대형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수급과 자금조달지수가 모두 116.7을 기록하여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관련 지수들이 여전히 기준선을 밑돌고 있음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9.6	116.7	97.4	82.3	106.9	87.8
		전망	93.9	100.0	89.5	91.8	93.9	91.7
	자금조달	실적	103.9	116.7	105.3	87.3	113.7	93.1
		전망	98.1	100.0	97.4	96.8	100.7	96.9
인력	수급	실적	115.5	116.7	121.1	107.8	117.5	111.4
		전망	102.8	100.0	105.3	103.1	103.0	102.1
	인건비	실적	83.0	83.3	81.6	84.1	79.8	82.8
		전망	87.1	83.3	92.1	85.7	84.0	88.0
자재	수급	실적	104.1	91.7	113.5	108.1	99.9	110.4
		전망	99.5	100.0	100.0	98.4	100.0	99.0
	비용	실적	72.8	75.0	65.8	78.1	71.4	71.5
		전망	78.8	91.7	60.5	84.4	76.1	74.3

주 : 실적은 2005년 8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5년 9월 예측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은 수급은 원활하나 비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115.5)과 자재수급(104.1)은 모두 원활한 것으로 나타남. 인력과 자재의 수급지수는 각각 5개월, 4개월째 원활한 상황이 지속됨.
 - 인건비(87.1)와 자재비(72.8)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됨.

- 2005년 9월에도 인력·자재의 비용이 여전히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인력과 자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력수급:102.8, 자재수급:99.5)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이나 비용(인건비:87.1, 자재비:78.8)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남.